

# 외국인 유학생의 논증 텍스트에 나타난 응집성 실현 양상 연구\*

-응집성 실현의 언어 사용을 중심으로-

이 정 란

## Abstract

**Lee, Jungran.** 2013. 6. 30. **The Study of Coherence in the argumentative text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Focus on expressions of coherence.** *Bilingual Research* 52, 371-38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aspects of coherence in the argumentative text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with a macroscopic point of view. Coherence is semantic network which is the most important and basic factor of the text.

In this study, some phenomena of language from foreign students in Korea were investigated such as expressions of coherence in basis-conclusion and basis-inference-conclusion structure in their academic reports. It is found that most of foreign students are lack of variety of expressions and cannot use conjunctions appropriately. Also,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drawing the valid inference in their wri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llustrate needs for education of the structure and expressions in argumentative texts.(**Ewha Womans University**)

**【Key words】** 논증 텍스트(argumentative text), 응집성(coherence), 근거-결론(basis-conclusion), 추론(inference)

---

\* 이 연구는 2012년 8월 11-12일 개최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2차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1. 서론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보고서를 대상으로 응집성을 실현하기 위한 언어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논증적 보고서에서 응집성을 실현하기 위한 언어 현상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논증적 글쓰기의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텍스트의 성질, 특성을 텍스트성이라 했을 때, 이 텍스트성의 자질들은 무엇일까? Beaugrande와 Dressler(1995)에서는 텍스트성의 기준들, 즉 텍스트를 텍스트답게 하는 요인들을 일곱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텍스트성의 기준은 응결성(cohesion), 응집성(coherence), 의도성(intentionality), 용인성(acceptability), 상황성(situationality),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정보성(informativity)이다.<sup>1)</sup> 이 중 응집성은 ‘담화의 심층적, 내용적, 의미적 연관성’을 의미한다(텍스트언어학회, 2004;43).<sup>2)</sup> 한 텍스트의 표층에 나타나는 표현들의 이면에 있는 내용들 간에 연속성이 있을 때 그 텍스트는 의미를 지닐 수 있게 된다. 응집성은 이러한 내용적 연속성을 기반으로 한 개념으로, 텍스트의 존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 1) ‘cohesion’에 대하여 연구자에 따라 결속 구조(Beaugrande&Dressler, 1995 등), 결속성(최연희 외, 2006 등), 응결성(고영근, 2011) 등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coherence’에 대하여는 결속성(Beaugrande&Dressler, 1995 등), 일관성(최연희 외, 2006 등), 응집성(고영근, 2011 등) 등으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cohesion’은 응결성으로, ‘coherence’는 응집성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겠다.
  - 2) Beaugrande와 Dressler(1995:128-129)에서는 응집성을 ‘여러 개념과 그 관계들이 발화 구성체 내부에서 서로에게 갖는 액세스 가능성 및 적합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고영근(2000)에서도 ‘응집성이란 의미의 그물망 곧 주체의 일관성을 뜻’한다고 하여 Beaugrande와 Dressler(1995)와 유사한 개념으로 응집성을 정의하고 있다.

텍스트의 내용적 연속성은 작은 의미 단위들의 구성, 즉 의미 구조를 통해 드러난다. 이러한 의미 구조는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데, 대학원생들이 보통 기말에 제출하게 되는 연구 보고서는 학문적 근거를 뒷받침으로 자신의 주장을 펴는 논증 구조가 지배적이다. 논증은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하여 상대방에게 그 정당성을 납득시키려고 근거를 대는 언어 행위(백설자, 1994:376)’이다. 논증 구조는 텍스트 안에서 다양한 언어적 장치들을 통해 실현되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의미 구조를 실현시키는 언어적 장치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한편, 그간의 응집성 관련 연구들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응집력 있는 글을 구성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양송이, 2008; 정다운, 2008; 장향실, 2010 등). 이들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시어나 접속 부사의 사용을 적절하게 하지 못해 응집성에 문제가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국어 학습자뿐만 아니라 한국어 학습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글에서도 응집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자기 주장이 드러나는 보고서에서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데, 한국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 대학원생들이 평가를 받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평가 항목이 기말에 제출하는 연구 보고서임을 생각해 보면 이는 학업 수행의 결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비단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한국인 대학원생들의 보고서에서도 응집성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sup>3)</sup> 그만큼 논증적 글쓰기가 어렵고 이에 대한 교육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는 언어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보고서를 대상으로 응집성 있게 의미 구조를 구성하기 위한 언어적 표현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고, 문제점이 있다

3) 박기영(2008)에서는 내용의 응집성 문제가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대학원생 모두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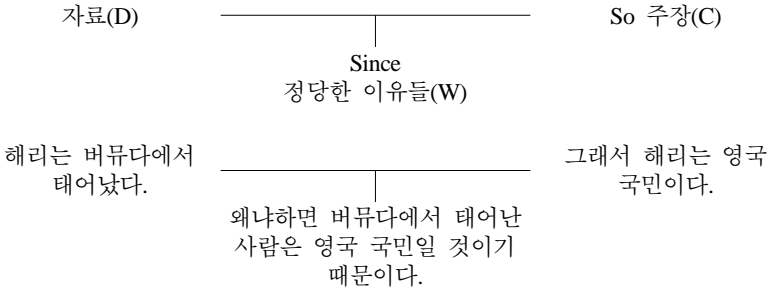
면 그 대안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논증 텍스트의 응집성을 실현시키는 언어 현상

논증 텍스트에서 응집성을 실현시키는 언어 현상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논증 텍스트의 의미 구조를 살펴보아야 한다. 의미들이 어떠한 관계로 엮이는지를 알아야 관계를 묶어주는 언어 표현을 추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논증의 기본적인 의미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해주는 언어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논증 텍스트는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독자가 받아들일도록 타당한 근거를 기반으로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Toulmin은 ‘논증은 하나의 유기체와 같다’고 표현한 바 있는데 (Toulmin, 2006:157)<sup>4)</sup>, 논증이 유기체와 같다는 것은 논증 텍스트의 내용을 구성하는 각 의미들이 단순히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설득이라는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구조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논증 텍스트의 의미들은 어떻게 구조화되는가? 논증 텍스트의 핵심 의미는 설득하고자 하는 내용, 즉 주장이고, 이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필요하다. 즉, 논증 텍스트의 기본 의미 구조는 ‘근거-주장’의 구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주제에 따라 ‘근거-결론’, ‘문제-해결’, ‘전제-결론’ 등의 구조로 나타날 수도 있다. 논증의 기본 모형이라 할 수 있는 Toulmin의 논증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이 책에서는 ‘argument’를 ‘논변’이라 번역하여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논증’이라 번역하여 사용한다.



<그림 1> 논증 구조 (Toulmin, 2006:165)

위의 <그림 1>에서 ‘자료(data)’는 주장이 기초하고 있는 근거를 말한다. ‘정당한 이유들(warrant)’은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주장 혹은 결론에 어떻게 도달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는 추론에 대한 것이다. 정리하면 논증의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근거-주장(결론)’의 의미 구조를 지니게 되며, 결론으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다리 역할을 해 주는 추론 과정이 존재할 수 있다. 논증 텍스트가 응집성 있게 조직되기 위해서는 이 ‘근거-(추론)-주장(결론)’의 구조가 의미적으로 잘 엮여져야 한다. 그렇다면 논증의 전개 과정에서 ‘근거-(추론)-주장(결론)’의 의미를 조직화하고 구조화하는 언어 표현<sup>5)</sup>은 무엇인가?

한국어에서 근거의 내용과 주장(결론)의 내용을 연결해 주는 대표적인 표현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이다.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에는 ‘따라서, 그러므로, 그래서’ 등이 있는데, 이 중 논증 텍스트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따라서’와 ‘그러므로’이다. 이 외에도 박나리(2009:69-70)에서는 ‘이에’,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맥락에서’와 같은

5) 응집성을 실현하는 언어적 표현은 일정 부분 응결성을 구현하는 장치들과 겹치게 된다. 응집성이 의미를 구성하는 내용적 측면이라면, 응결성은 이것이 표층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응집성과 응결성은 그 기본적인 성격에 있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의미적 연결에 초점을 두고 이를 실현하는 언어적 표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겠다.

표현들도 논증 텍스트에서 근거와 주장(결론)을 연결시켜주는 언어적 표현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논증 텍스트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사용된 실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문화와 언어의 필연적 연관성에 따라 필자는 언어문화의 언어교육적 효용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본고는 언어문화의 개념과 범위를 논하고 한국어교육 연구와 실제에 언어문화의 교육적 적용을 구상해 보려고 한다. (이미향, 2011:115)
- (2) 그러므로 본고는 선행 연구들이 과제로 남겨둔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 어휘 교수 방법과 어휘 교육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어휘 교육의 핵심 쟁점 사항을 그동안 제2언어 교육에서 이루어 낸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해 보면서 한국어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 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어 어휘 교수 연구의 경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어휘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겠다. (원미진, 2011:256-257)
- (3) 특히 오미라·이해영(1994)와 박기영(2009)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미에 따라 억양이 달리 실현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억양 교육 항목으로 선정하고 교수 방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의미에 따라 억양이 달리 실현되는 어미들의 교수 방안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그러한 어미들의 억양 습득 양상을 조사하고자 한다. (권성미, 2010:3-4)

‘이에’,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맥락에서’와 같은 표현들은 주로 서론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나 현황의 문제점을 근거로 연구 목적을 밝힐 때 많이 나타난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거에서 주장(결론)으로 의미가 이행

될 때 추론의 과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추론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는 사용되는 대표적인 언어 표현은 조건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는)다면, -(으)면, 그렇다면, 그러면’ 등이 있다. 여기에 덧붙여 박나리(2009)에서는 간혹 ‘-(으)ㄹ 때’도 추론을 위한 표현으로 사용된다고 하였다.<sup>6)</sup> 한국어 모어 화자의 논증 텍스트에서 ‘-(는)다면’과 ‘-(으)ㄹ 때’를 사용하여 추론 구조를 실현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4) 문법 능력을 좁은 의미로 형태, 통사, 의미적 체계에 대한 지식과 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내재적 능력이라고 본다면, 이는 언어 형태 중심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정란, 2011:76)

(5) 선행 연구와 아울러 논의해야 할 문제가 바로 용어의 문제이다. 선행 연구 모두 ‘북한의 한국어교육’, ‘북한의 조선어교육’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북한의 공식 명칭을 고려했을 때 ‘조선어교육’ 다시 말하면 조선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인규, 2012:287)

본 연구에서는 논증 텍스트가 기본적으로 ‘근거-(추론)-주장(결론)’의 의미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데 동의하는 바, 유학생들의 보고서에서 이러한 의미 구조가 언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며, 이는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아닌 의미 단위 간 관계를 파악하는 거시적 측면의 분석이 될 것이다.

---

6) ‘-(으)ㄹ 때’가 추론의 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박나리(2009:85-87)에서는 장경희(1985)의 분석을 기반으로 ‘ㄹ’은 [발생]의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는 [객관성]과 [예정결정성]의 자질을 지니게 되어 추론의 성격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 3. 분석 방법

#### 3.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1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국내 2개 대학<sup>7)</sup>의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의 보고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제공자들의 숙달도는 한국어 능력 시험 4급 이상이였다. 보고서 유형이나 성격은 전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문학으로 전공을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료 제공자들의 전공을 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전공별 자료 제공자의 수

| 전공 | 한국어<br>교육학 | 한국학 | 국어학 | 동아시아학 | 사학 | 합계 |
|----|------------|-----|-----|-------|----|----|
| 수  | 18         | 3   | 2   | 2     | 2  | 27 |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들의 모국어는 변인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현재 중국인 유학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전반적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특정 언어권 유학생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적별 자료 제공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

<표 2> 국적별 자료 제공자의 수

| 국적 | 중국 | 베트남 | 일본 | 태국 | 몽골 | 대만 | 인도네시아 | 합계 |
|----|----|-----|----|----|----|----|-------|----|
| 수  | 14 | 5   | 3  | 2  | 1  | 1  | 1     | 27 |

7) 자료를 제공한 유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는 서울 소재 대학 1개, 경기 소재 대학 1개이다.



한편, 보고서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성격에 따라 형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 연구 주제를 선정해 연구를 수행한 논증적 텍스트로 한정하여 수집하였다. 자료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유학생들의 동의를 얻었다.

### 3.2 분석 기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논증 텍스트가 ‘근거-(추론)-주장(결론)’의 의미 구조를 지닌다는 전제 하에 이를 실현시키는 언어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논증 텍스트의 기본 구조가 ‘근거-주장(결론)’의 구조이므로, 우선 이 구조를 실현시키는 언어 현상을 분석하고, 그 다음 기본 구조에 추론 과정이 추가될 때의 언어 현상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근거-주장(결론)’의 구조에 대해서는 ‘따라서, 그러므로’와 같은 접속 부사와 박나리(2009)에서 ‘근거-주장(결론)’의 구조에 사용되는 언어 현상으로 제시한 지시어 ‘이’와 [원인]의 조사 ‘에’의 결합형인 ‘이에’, [근거]의 자질을 갖는 명사인 ‘바탕, 맥락, 측면’ 등이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나 [근거]를 나타내는 조사 ‘에서’와 결합된 형태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추론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건구문과 ‘-(으)르 때’를 사용한 구문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한 본 연구의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lt;표 3&gt; 분석 기준

| 의미 구조        | 언어 형태         | 예                                 |
|--------------|---------------|-----------------------------------|
| 근거-주장(결론) 구조 | 접속 부사         | 따라서, 그러므로                         |
|              | 이+에           | 이에 <sup>8)</sup>                  |
|              | [근거]명사+에서, 으로 | 이를 바탕으로,<br>이러한 맥락에서,<br>이러한 측면에서 |
| 추론 구조        | 조건구문          | -(는)다면, -(으)면,<br>그렇다면, 그러면       |
|              | -(으)ㄹ 때       | 이렇게 볼 때                           |

본 연구에서는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논증 텍스트로서의 보고서에서 응집성을 분석할 것이다.

## 4. 외국인 유학생 보고서의 응집성 분석

### 4.1. 근거-주장(결론) 구조의 표현

이 절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보고서에서 ‘근거-주장(결론)’의 의미 구조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거-주장(결론)’의 의미 구조는 연결되는 단위의 내용에 따라 ‘문제-해결’ 구조, ‘전제-결론’ 구조로 나타나기도 한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보고서에서 ‘근거-주장(결론)’ 구조가 나타난 경우를 분석한 결과 접속 부사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①본 연구가 받침에 초점을 둔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②중국어권

8) ‘이에’는 접속 부사는 아니나 접속 부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고 실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접속 부사처럼 교수하는 경우가 많아 접속 부사와 함께 분석하였다.

화자들이 중국어 표준어에서 받침 발음은 [-n], [-ŋ]이 있지만 그 외에 없다. ③그러나, 대만어는 중고 한어의 받침 발음을 완벽하게 보존해 왔다. \_\_\_\_\_ ④대만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한국어 발음을 배우는 방법을 찾으려 대만어와 한국어의 음운체계와 받침 발음에 대한 대조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9) (대만\_26)

위의 예(6)에서 밑줄을 그은 부분은 접속 부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②와 ③은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의 내용이고 ④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인데, 이 두 내용이 접속 부사나 다른 표현 없이 나열되어 있어 근거와 주장의 구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작성한 보고서의 서론 부분에서는 이와 같이 접속 부사를 누락시킨 채 선행 내용(근거)과 연구의 목적이나 필요성(결론)을 기술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또한 다음의 예에서와 같이 접속 부사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근거-주장(결론)’ 구조의 응집성을 저해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다.

(7) 외국어 발음을 습득할 때 학습자의 모국어로부터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발음에 대한 연구가 특히 많다. 대만의 한국어 교육은 21세기부터 한류 열풍 여향을 받아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대만 학습자를 위한 발음 연구에 대한 선행 연구는 드물다. 장천매(張天玫, 2007)에서는 대만의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위해 대만어와 한국어 모음체계의 대조를 밝혔고 모음 발음 교육 방안을 제출한다. 그런데, 받침에 대해 완전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 방언에 대한 선행연구도 있었다. 吳鈇(2009)는 중국 방언권에 따른 한국어 음소를 연구한 바가 있고, 高欣穎(2010)는 한국한자음과 중국 방언의 비교 연구가 있었다. 그렇지만 대만어에 대한 연구가 적고, 대만

9) 번호와 밑줄은 연구자가 임의로 표시한 것이다. 또한 유학생 보고서의 예는 정서법 및 표현 등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시하였다.

어와 한국어 발음의 유사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대만과 중국은 전쟁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차이가 있을뿐더러 문화적인 차이도 크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대만어와 한국어의 발음을 대조하고자 한다. (대만\_26)

- (8) 한편 매년 증가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서 정착하면서 문화 차이를 물론이며 가정폭력문제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다. 더불어 이들은 베트남에 남은 가족을 위해 경제적 지원에 대한 책임 때문에 이중, 삼중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경제활동을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한국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받아 주느냐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경제 활동하는 과정에서 왜 어려움 겪는 것인지 및 어떤 장애를 넘어가야 할 것인지 밝히고자 한다. (베트남\_15)

예(7)에서는 밑줄 친 ‘그래서’ 대신 ‘따라서’나 ‘이에’와 같은 표현이 더 적절하다. 또한 예(8)에서도 ‘그러므로’가 어색하게 느껴진다. 주지하다시피 ‘그래서’, ‘그러므로’와 같은 ‘그’ 계열의 접속 부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미시적 구조에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예들과 같이 두 문장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접속 부사를 기준으로 선행 내용 전체(문제 제시)와 뒤에 나오는 연구 목적(해결)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그래서’나 ‘그러므로’보다는 ‘따라서’나 ‘이에’와 같은 표현이 더 적절하다. 특히 ‘그래서’는 ‘근거-결론’의 구조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유학생들의 보고서에서는 ‘그래서’를 사용하여 ‘근거-결론’의 구조를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그러므로’와 같은 미시적 연결 기능을 하는 접속 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인데 ‘따라서’를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근거-결론’의 구조에서 접속 부사를 누락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가 다수 나타났는데, 접속 부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의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0)</sup>

<표 4> 접속 부사 오류 빈도

| 오류 유형 | 누락 | 대치  |    |      |     | 합계 |
|-------|----|-----|----|------|-----|----|
|       |    | 따라서 | 이에 | 그러므로 | 그래서 |    |
| 발생 빈도 | 21 | 12  | 4  | 7    | 28  | 72 |

접속 부사를 사용하여 ‘근거-주장(결론)’ 구조를 실현한 경우는 총 188 회였는데, 이중 접속 부사를 사용해야 하는데 누락하거나 부적절한 접속 부사를 사용한 경우는 총 72회로, ‘근거-주장(결론)’ 구조에서의 접속 부사 출현 빈도의 약 38%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접속 부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접속 부사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래서’를 사용하여 응집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와 같은 표현은 출현 빈도 자체가 적었다. 이러한 문제는 유학생들이 인과관계를 표시한다는 접속 부사의 의미만 알고 있을 뿐 그 사용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학문 목적 학습자들에게 접속 부사의 기능뿐 아니라 사용역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근거-주장(결론)’ 구조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근거]의 명사류와 조사 ‘에서’, ‘으로’가 결합된 형태는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와 같이 ‘측면’을 활용한 경우가 4회, ‘이를 바탕으로’와 같이 ‘바탕’을 활용한 표현이 11회 정도 나타났을 뿐, ‘이러한 맥락에서’나 ‘이러한 점에서’ 등 다른 표현을 활용한 구조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학술논문에서 [근거]의 명사와 조사가 결합한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한국어 구사력이 고급 수준 이상인 외국인 대학원생들이 ‘근거-주장(결론)’의 의미 구조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

10) 빈도 분석을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은 antconc 3.2.4이다.

는 것이며, 이러한 표현들을 교수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명사 ‘바탕’은 주로 그 앞에 목적격을 두고 뒤에는 조사 ‘으로’가 주로 결합하고, ‘측면’, ‘맥락’은 ‘이러한’ 등과 같은 표현과 조사 ‘에서’가 결합한다. 그런데 이러한 결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도 발견되었다.

- (9) 본 연구는 초급 수준의 학습자를 위한 독학용 한국어 교재는 어떠한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제시하기 위하여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독학용 교재를 분석하고 몽골인들을 대상으로 요구분석을 할 것이다. 이러한 바탕으로 독학 교재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제시하고, 일반적인 교재 개발의 절차에 따라 개발 방향을 정한 후, 바람직한 독학 교재 개발 방안 및 교재 구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몽골\_25)

위의 예(9)를 보면 [근거]의 자질을 지닌 명사 ‘바탕’을 활용하기는 하였으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논리적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명사에 따라 결합하는 조사가 다르고 선행하는 ‘이’ 계열의 접속 표현이 다르니 이를 묶어서 덩어리 표현으로 교수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보고서에서 ‘근거-주장(결론)’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 모국어에 상관없이 유학생들은 주로 접속 부사에만 의지하여 ‘근거-주장(결론)’의 구조를 구성하고 있었고, 접속 부사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여 응집성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sup>11)</sup> 또한 [근거]의 명사와 ‘에서’, [근거]의 명사와 ‘으로’가 결합된 형태 등을 이용한 다양한 표현

11) 정다운(2008)에서는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작문을 분석한 연구에서 학습자들이 접속 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응집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록 피험자 대상은 다르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은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텍스트 내에서의 접속 부사 사용역에 대한 교수가 필요함과 접속 부사 외에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근거-주장(결론)’의 의미 구조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교수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2. 추론 과정의 표현

이 절에서는 추론 과정이 더해질 때 응집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어떠한 언어 표현들을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추론 과정에서는 ‘-(는)다면’, ‘-(으)면’과 같은 표현을 활용한 조건구문이 사용될 수 있으며, ‘-(으)ㄹ 때’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의 보고서에서는 논리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추론 구조 자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나마 소수 추론 과정이 나타난 경우는 ‘-(으)면’을 사용한 경우와 ‘그렇다면’을 사용한 경우였다. 유학생들의 보고서에서 조건구문이 사용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예문(4)는 신혼 부부인 김우진과 최윤희가 신혼 여행을 다니면서 어릴 적의 추억을 나누었던 장면이다. 우진이가 윤희를 보고 ‘인마’라고 부르는 것은 남편이 자신보다 몇 살 어린 아내를 매우 좋아하고 귀여워하기 때문에 부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가부장제의 영향으로 인하여 남편이 아내를 낮춰 부른다고 해석하면 더 정확할 것 같다. (중국\_4)

(11)그 정보들은 루머임을 기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으면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점점 더 쌓이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중’, ‘반한’ 정서가 더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_7)

(12)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가 중국어 거성 성조 조합의 영향을 받아 한국어 한자어를 발음할 때 음높이에 오류를 범하는지 그렇다면 양상과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오류분석론적 연구는 아직 실행되지 못한다. (중국\_14)

매우 드물게 위의 예와 같이 ‘-(으)면’을 사용한 경우가 나타났으며, ‘-(는)다면’ 혹은 ‘-(으)르 때’를 사용한 경우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학술논문에서 추론 구조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추론 구조를 실현할 때 ‘-(으)면’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는)다면’, ‘-(으)르 때’를 주로 사용하는데, 유학생들의 보고서에서는 ‘-(는)다면’, ‘-(으)르 때’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 모어 화자에 비하여 논증 구조를 전개할 때 ‘근거-추론-주장(결론)’의 의미 구성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추론의 의미 구조 및 의미 간 연결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보고서를 대상으로 응집성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논증이 기본적으로 ‘근거-주장(결론)’ 혹은 ‘근거-추론-주장(결론)’의 구조를 지닌다고 전제하고, 유학생들의 논증적 보고서를 수집하여 이러한 논증 구조가 어떠한 언어 표현을 통해 실현되는지 거시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학생들은 ‘근거-주장(결론)’의 의미 구조를 실현할 때 특정 접속 부사에만 의지하는 경향을 보였고, 접속 부사 사용에 있어서 부적절한 접속 부사를 사용하거나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맥락에서’와 같은 표현은 찾기 어려웠다. 추론의 의



미 구조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드물게 나타난 표현들은 ‘-(으)면’이나 ‘그렇다면’을 통한 조건구문이었다. ‘-(는)다면’이나 ‘-(으)르 때’ 등을 사용한 추론의 의미 구조는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 결과를 보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논증 텍스트에서 응집성을 실현하기 위한 언어 표현들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용을 전개할 때 추론 구조는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논증 텍스트의 응집성에 대한 교육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 먼저 논증 구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우선 논증 텍스트의 핵심이 되는 의미 구조가 근거와 주장(결론)의 구조이고, 필요한 경우 추론 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유학생들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추론 구조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언어 형식에 대한 교수 이전에 의미 구조와 구성 방법에 대한 교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텍스트의 주장이 되는 내용과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을 구성, 배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론의 과정을 덧붙여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둘째, 논증 텍스트의 의미 구조를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의미 구조를 유기적으로 엮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표현들을 교수해야 할 것이다. 유학생들의 논증 텍스트를 보면 ‘근거-주장(결론)’의 의미 구조를 구성할 때 접속 부사에만 의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맥락에서’,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측면에서’와 같은 표현들을 맥락에 맞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교수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추론 구조를 나타낼 때 조건 구문과 시간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음을 교수하여 추론의 의미 구조를 제시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접속 부사의 사용역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접속 부사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에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가 여럿 있지만 각각이 사용되는 영역은 상이하다. 인과관계를 나타낸다는 기능만 교수할 것이 아니라 각 접속 부사의 사용역에 대한 교수를 하여 맥락에 적절한 접속 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텍스트성의 핵심 요인인 응집성이 유학생들의 보고서에서 언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학문목적 학습자들을 위한 쓰기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논증 구조인 ‘근거-결론’의 구조와 추론 구조만 고찰하고, 이에 대한 제한된 표현만을 분석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응집성의 실현 양상을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미시적 차원에서의 분석은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 <참고 문헌>

- 고영근(2011). 『텍스트과학』. 서울: 집문당.
- 권성미(2010). 연결어미의 종결어미적 쓰임에 나타나는 억양의 중간언어 연구, <한국어교육> 21권 4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쪽-23쪽.
- 김인규(2012). 조선의 ‘외국어로서 조선어교육’ 연구, <한국어교육> 23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83쪽-306쪽.
- 박기영(2008). 외국인 유학생의 학문 목적 글쓰기에 대한 일고찰: 단락 쓰기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4권 3호, 한국어언어문화교육학회. 103쪽-126쪽.
- 박나리(2009). 학술논문의 텍스트성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설자(1994). 조건구문과 학술논증의 이행점, <텍스트언어학>, 2호, 텍스트언어학회. 375쪽-401쪽.
- 양송이(2008). 한국어 학습자 텍스트의 응집성 양상 분석-중,고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미진(2011).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의 방향 모색, <한국어교육> 22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55쪽-279쪽.
- 이미향(2011). 한국어 교수 설계를 위한 상호작용적 관점에서의 언어문화 考 -외국인 저술 초기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8권 2호, 국

- 제 한국어언어문화학회). 113쪽-141쪽.
- 이보라미·수과편분롱(2012).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텍스트 응집성 인식 양상 연구, <이중언어학> 48호, 이중언어학회. 181쪽-202쪽.
- 이정란(2011). 한국어 학습자의 양태 표현 습득에 나타난 문법 능력과 화용 능력의 발달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향실(2010). 외국인 대학생의 문단쓰기 실태 및 문단쓰기 능력 신장 방안, <우리어문연구> 38집, 우리어문학회. 361쪽-381쪽.
- 정다운(2007). 중국인과 일본인의 한국어 작문 텍스트 대조 분석: 텍스트 구조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3호, 이중언어학회. 215쪽-243쪽.
- 정다운(2008).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서 ‘내용 조직하기’ 분석, <어문연구> 139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419쪽-442쪽.
- 제효봉(2011).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텍스트 생성 과정 고찰: 단락 구성과 모국어의 영향 관계, <이중언어학> 45호, 이중언어학회. 231쪽-259쪽.
- 한국텍스트언어학회(2004).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서울: 박이정.
- Beaugrand, R. A. & Dressler, W.(1995), 『텍스트 언어학 입문』, (김태욱, 이현호 역.). 서울: 한신문화사.
- Toulmin, S. E.(2006). 『논변의 사용』, (고현범, 임건태 역.).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Williams, J. M. & Colomh, G. G.(2008). 『논증의 탄생』, (윤영삼 역.). 서울: 흥문관.

이정란 (Lee, Jungran)

이화여자대학교

121-080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1

전화번호: 010-5193-0611

전자우편: tongkeun@hanmail.net

접수일자: 2013년 4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3년 6월 17일

게재확정: 2013년 6월 20일